

石油類消費가 늘고 있다

1/4分期 石油消費動向

国 内石油類消費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. 第2次 石油危機로 79년 상반기부터 沈滯現象을 보이던 国内景氣가 82년 하반기부터 完만한 회복세로 反轉하면서 国内石油類消費도 늘어나고 있으며, 이같은 증가추세는 4.19油價引下로 더욱 加速化될 것 같다.

動力資源部와 石油協會의 자료에 따르면, 지난 1/4分期中 国内石油類消費는 총4천6백42만4천배럴로 前年同期對比 6.2%의 증가를 나타냈다. 이같은 증가현상은 지난 해 1/4分期의 石油類消費실적이 前年同期에 비해 14.3% 감소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것이다.

이같은 石油類消費의 증가추세는 최근의 国内景氣회복세에 起因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.

최근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경제동향에 따르면, 지난 3月の 景氣先行지수는 1백70.1(75년=

100)로 2월에 비해 1.7%나 큰 폭으로 증가했다. 이는 작년 11月 이후 계속 완만한 회복세를 보여온 景氣가 뚜렷한 상승세로 돌아섰음을 보여주는 셈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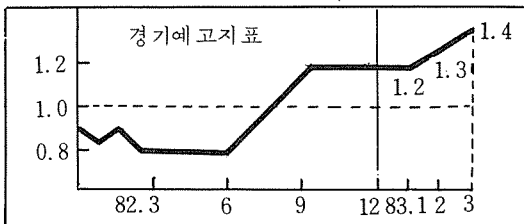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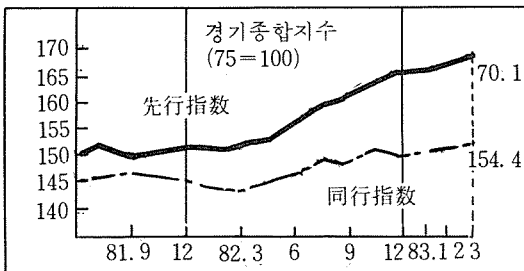
또 현재의 景氣흐름을 보여주는 同行指數도 제조업의 출하및 도소매액의 증가로 3月中에 0.7% 상승했다.

1/4分期 石油類 消費実績

(單位：千배럴)

	'82. 1/4	'83. 1/4	增減率(%)
揮 發 油	1,279	973	▲23.9
高 級 油	229	186	▲18.8
普 通 油	1,050	787	▲25.1
灯 油	1,996	2,206	10.5
輕 油	9,595	10,454	9.0
0.4 %	1,373	2,704	96.9
1.0 %	8,222	7,750	▲ 5.7
輕 質 重 油	559	516	▲ 7.7
重 油	218	196	▲10.1
B - C 油	22,218	22,319	0.5
1.6 %	2,939	4,479	52.4
2.5 %	1,746	1,819	4.2
4.0 %	17,533	16,021	▲ 8.6
제 트 油	1,310	1,923	46.8
航 空 油	0.302	0.186	▲38.6
나 프 타	4,939	5,189	5.1
溶 劑	120	159	32.5
L P G	1,272	2,306	81.3
프 로 판	665	971	46.0
부 탄	607	1,335	119.9
아 스 팔 트	200	183	▲ 8.5
計	43,706	46,424	6.2

(資料) 大韓石油協會



国内經濟展望

한편 韓國銀行이 작성한 3月中경기예고지표는 지난 80년 이후 가장 높은 1.4로 상승, 景氣가 호전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.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국내소비의 증가로 3月中 제조업의 가동율은 1년전 보다 11.6%나 늘어났다.

이에 따라 石油類소비는 지난 해 5월을 기점으로 하여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. 前年同月對比月別증감율을 보면, 82년 5월 11.5%, 6월 11.1%, 7월 17.4%, 8월 2.8%, 9월 5.2%, 10월 5.6%, 11월 6.4%, 12월 19.9%, 83년 1월 9.3%, 2월 4.1%, 3월 5.1%로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.

需要部門別 消費構造를 보면, 금년 1~2月中에 수송은 전년동기대비 12.0%가 늘어났고, 취사·난방과 化學부문은 각각 9.5%, 5.9%가 증가했다. 그 반면에 發電部門은 8.1%가 감소했으며, 洋灰과 鐵鋼은 각각 65.9%, 7.3%가 감소했다.

油種別 消費実績을 보면, 揮發油를 제외하곤 거의 全油種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, 특히 부탄은 營業用택시연료의 LPG轉換에 힘입어 前年同月對比 무려 1백19.9%나 증가했으며, 프로판도 46.0%가 늘어났다. 그 반면 揮發油는 택시연료의 LPG轉換에 따른 수요감퇴로 前年同月對比 23.9%의 감소를 나타냈다. LPG차량은 83년 2월말 현재 7만2천6백51대로 前年 대비 1백80.4%가 늘어났다.

運輸部門 油類消費実績

		'82.1~2	'83.1~2	增減率(%)
L P G	車輛 (單位:台)	25,905	72,651	180.4
	燃料消費 (單位:千배럴)	220	450	104.6
揮發油	車輛 (單位:台)	242,640	236,835	▲2.4
	燃料消費 (單位:千배럴)	607	458	▲24.5
輕油	車輛 (單位:台)	305,259	333,645	9.3
	燃料消費 (單位:千배럴)	3,021	3,430	13.5

〈資料〉動力資源部

	1982	1983			1984
		上半期	下半期	年間	
GNP成長率(%)	5.4	6.9	8.3	8.5	7.8
總消費	3.6	4.6	5.0	4.8	5.6
固定投資	11.5	10.5	9.2	9.7	9.2
商品輸出	2.8	5.6	12.4	9.2	11.3
商品輸入	1.4	7.2	9.5	8.4	9.2
經常收支(億弗)	-25	-9	-11	-20	-20
貿易收支	-24	-8	-10	-18	-17
輸出	210	109	125	234	271
輸入	234	117	135	252	288
物價上昇率 ¹⁾ (%)					
都 売	4.7	1.4	2.2	1.8	2.8
消費者	7.3	4.4	4.6	4.5	3.9
GNP디플레이터	8.0	5.5	5.2	5.3	4.8

〈註〉1) 期間中 上昇率

〈資料〉韓國開發研究院

또 燈油와 輕油도 前年同月對比로 각각 10.5%, 9.0%가 증가했으며, B-C油는 0.5%가 늘어났다. 그리고 나프타는 최근 石油化學工業의 景氣回復과 가동율증가에 힘입어 5.1%나 증가했다. 石油化學工業의 가동율은 비료공업이 지난해 3월의 64.2%에서 지난 3월에는 64.4%로 0.2% 상승했고, 石油化學工業은 지난해 3월의 69%에서 지난 3월에는 87%로 18%나 상승했다.

앞으로 油類需要는 国内景氣회복과 4.19 油價引下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. 韓國開發研究院은 올해 上半期の GNP成長率을 6.9%로 보고 있으며, 또 下半期에는 8.5%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 특히 정부가 4.19 油價引下에서 벵커-C油와 나프타와 같은 生産財·産業用 油種을 중점적으로 인하함으로써 앞으로 경기회복에 큰 도움을 줄 것이며, 이에 따라 油類수요의 증가는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. 그 동안 油類需要의 감퇴와 가동율의 저하로 고통을 받아온 精油産業에도 이제 한가닥 서광이 비치고 있다. * 〈金乾洽·大韓石油協會 弘報室長〉